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이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 삶의 의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오현주¹, 강문희^{2*}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²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The Effect of the Happy Village Convergence Program on the Depression, Meaning of Life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Women in Rural Area

Hyun-Joo Oh¹, Moonhee Gang^{2*}

¹Assistant Professor,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이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군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25명(실험군=12명, 대조군=13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월 10일에서 3월 14일까지였다. 실험군은 주 1회 60분씩 총 10회기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1회 40분씩 총 2회의 건강교육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χ^2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t=-2.195, p<.05$)과 삶의 의미($t=2.75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농촌여성의 우울과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성별과 지역을 확대한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유용성 확인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우울, 삶의 의미, 자살생각, 농촌, 노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Happy Village Convergence Program on the depression, meaning of life and suicidal ideation in rural elderly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 elderly women aged 65 years or older in G province (12 experimental group and 13 control group). The data collected from January 10, 2019 to March 14, 2019.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10-session program, once a week for 60 minut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and t-t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t = -2.195, p <.05$) and meaning of life ($t = 2.757, p <.05$)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rural women. We propose further study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the program by expanding the gender and area

Key Words : Depression, Meaning in life, Suicidal ideation, Rural, Elderly

*Corresponding Author : Moonhee Gang(mhgang@cnu.ac.kr)

Received July 26,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Revised August 26,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1. 서론

지출산률과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201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9%에 달하였고 2051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1].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된 신체적·사회적·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문제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21.1%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며[1]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없고, 독거상태 및 기능제한이 있을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한다[2] 우울증은 노년기에 유병률이 높은 정신과적 문제 중 하나[3]로 노년기 우울증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우울감을 적게 호소하고, 신체기능 저하 및 불편감을 더 많이 호소하여 가족이나 의사들에 의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4]. 노인 우울증은 의학적 이환률과 사망률의 증가, 건강상태의 악화 및 사회·인지능력의 저하, 자살 위험성의 증가와 관련 있기[5] 때문에 공중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우울은 단일요인으로 자살의 강력한 예측요인[6]이며 자살자의 54~87%가 자살당시 우울증을 포함한 정서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7] 노인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지수가 높으며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8].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별분포는 여성노인이 3:2정도로 많고, 80세 이상의 여성노인 성비는 7:3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농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 및 질병 유병률이 높다[9]. 또한 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족하며 의료 및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시설과 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여가생활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소외감, 고독감,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10] 우울증과 자살생각의 발생가능성이 높다[11]고 보고되었다. 또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노인들에게는 의료적 접근보다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우울 및 자살예방 개입이 더 중요할 것[12]으로 여겨진다.

노인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아진다[13]. 노인의 자살은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하는 의도가 높아 치명적인 자해수단을 사용하므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7]. 하지만 우울함을 느끼는 노인들이 모두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노년기 자살에 영

향을 미치는 우울과 같은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가족, 종교, 사회적지지, 갈등해결전략, 대응전략,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의미 등이 보고되었다[14]. 위와 같은 보호요인 중 삶의 의미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행복과 건강수준이 높고[15] 자살충동과 자살시도를 낮추어주고[16,17,18]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우울, 불안의 증상을 경험하고[19] 약물남용, 자살생각 및 자살충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20,21]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와 상실 및 지역적 특성으로 우울을 경험하기 쉬운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중재프로그램은 노인우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자살생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이 농촌여성 노인의 우울,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군 지역에 소재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여성 노인들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포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인지수준은 우울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MMSE-DS 결과 절단점 23점 이상으로 설문지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2) 신체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3) 정신질환(우울증, 조현병 포함)을 앓았던 적이 없는 자, 4) 최근 6개월 이내에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5)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 t-test 양측검정, 유의수준.05, 효과크기 1.5[22],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총 표본 수는 집단별로 9명씩 총 18명이며 탈락률 40%를 고려하여 25명이었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병원진료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회 이상(1/3) 결석으로 중도 탈락한 노인은 실험군 3명, 대조군 5명이었다. 따라서 최종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실험군 12명과 대조군 13명이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G군의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 요구도가 높은 2개 마을을 선정한 후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마을을 동전단지기로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월 10일에서 3월 14일까지였다. 실험군은 주 1회 60분씩 총 10회기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1회 40분씩 총 2회기의 건강교육을 받았다. 프로그램 전 후의 자료 수집은 사전에 훈련받은 연구보조원 3명이 수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Kroenke 등[2001]에 의해 개발된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최홍석 등[3]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SM-IV에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런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의 범위는 0~27점이다. 우울감별 절단점은 9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3.2 삶의 의미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는 Steger 등[24]이 개발한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을 윈두리 등[1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의미존재(MLQ-P)와 의미추구(MLQ-S)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문항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언제나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의미존재(MLQ-P)에서 Cronbach's $\alpha = .82$, 의미추구(MLQ-S)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3.3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이상주[25]가 개발한 한국형 노인자살위험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예=1점, 아니요=0점이다. 절단점은 11점으로 80세 이상 여성 집단에서 가장 민감도, 특이도, 정분류값이 높게 개발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2.4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

본 연구의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은 선행연구[22]와 집단치료의 원리에 기초하여 우울예방 및 자살예방교육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의미를 높여주고 우울과 자살생각을 낮추어주고자 개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따라 하기 쉽고, 낙상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간호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신간호학 교수 2인, G군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다. 각 회기는 흥미유발을 위한 준비단계로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10분), 본 활동(30분), 스스로 자신의 발을 마사지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마무리단계(10분)로 구성되었다. 실험군은 주 1회 60분씩 총 10회기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본 연구자가 하였고, 간호학 석사과정중인 간호사 1인이 프로그램 보조진행을 수행하였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tents of Happy Village Convergence Program

Session	Topics	Contents	Time (min)
1	Orientation	Introduce each other Introduce the program and make rules and agreements Conduct the pre-test	60
2	Finding a positive relationship	Remembering childhood happy experiences	60
3	Sharing about overcoming difficulties of life	Talking about an experience that overcame a difficult moment in your life	60
4	Finding the my strength and potential source	Speaking your own strengths more than three	60
5	Education about depression	Providing elderly depression education and pamphlets	60
6	Education about suicide prevention and life respect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d useful resources guide	60
7	Finding my happiness	Talking about the three conditions of happiness you think	60
8	Learning about communication skills	Learn how to communicate effectively	60
9	Realization of happiness	Talking about "What is life I want? Wish of the year"	60
10	Evaluation and End the program	Conduct the post-test and Completion ceremony Share feelings and thoughts	60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변수가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였으며,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두 군 간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의 정규성 가정은 히스토그램, 왜도, Kolmogorow-Smirnov Test를 통해 검정한 결과 주관적 통증(p=0.992), 주관적 건강상태(p=0.955), 삶의 의미(p=0.397), 우울(p=0.998), 자살생각(p=0.596)는 p값이 0.05이상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여 모수통계를 이용 분석하였다. 중재전, 중재후의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을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대부분 75세 이상이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80%이상의 대상자가 교육경험이 없었다.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주관적 통증,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의미, 우울 및 자살생각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

		Exp. G (n=12)	Cont. G (n=13)	χ^2/t	p
		M±SD or n(%)	M±SD or n(%)		
Age(yr)		78.83 (6.00)	77.08 (4.86)	0.808	.428
Income (10,000won/month)		41.67 (13.54)	40.77 (21.86)	0.122	.904
MMSE -DS	Mean	24.33 (2.06)	24.86 (1.77)	0.535	.601
	Have	2(16.7)	3(23.1)		
Spouse	Have not	10(83.3)	10(76.9)	0.16	.689
	Yes	6(50)	6(46.2)		
Solitude	No	6(50)	7(53.8)	0.037	.848
	Yes	9(75)	10(76.9)		
Religion	No	3(25)	3(23.1)	0.013	.91
	Yes	9(75)	10(76.9)		
Education	Elementary or higher	2(16.7)	2(15.4)	0.008	.93
	None	10(83.3)	11(84.6)		

Exp.G=experimental group : Cont.G=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on Pretest (n=25)

Variables	Exp. G (n=12)	Cont. G (n=13)	t	p
	M±SD	M±SD		
Meaning of life	37.58 (12.18)	42.54 (10.31)	-1.101	.282
Depression	4.50(3.71)	5.54(5.03)	-0.584	.565
Suicidal Ideation	5.25(1.14)	4.69(2.98)	0.627	.540

Exp. G=experimental group : Cont. G=control group

3.2 생명존중, 행복마을 프로그램의 효과

생명존중, 행복마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t-test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실험군은 10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삶의 의미 점수가 중재 전 37.58점에서 중재 후 50.83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42.54점에서 39.85점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57, p<.05).

Table 4. Difference in Depression,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two groups (n=25)

Variables	Group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eaning of life	Exp. (n=12)	50.83 (10.54)	13.25 (12.37)	2.757	.011*
	Cont. (n=13)	39.85 (9.39)	-2.69 (3.01)		
Depression	Exp. (n=12)	1.5 (2.02)	-3.00 (2.89)	-2.195	.043*
	Cont. (n=13)	4.62 (4.66)	-0.92 (2.36)		
Suicidal Ideation	Exp. (n=12)	3.67 (1.56)	-1.58 (1.73)	-.673	.508
	Cont. (n=13)	4.23 (2.49)	-0.46 (1.76)		

Exp.=experimental group : Cont.=control group

우울은 실험군이 중재 전 4.50점에서 중재 후 1.5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5.54점에서 중재 후 4.62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95, p<.05) 자살생각의 경우 실험군에서 중재 전 5.25점에서, 중재 후 3.67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이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 삶의 의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던

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유교주의적 성향이 강해[26] 연구대상 마을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불편감을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우울은 10회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우울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27][2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 의미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한 김찬희[29]의 연구에서도 우울감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강경아 등[27]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기에 회상을 통해 어린 시절의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도록 도와 자신의 힘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소감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회상은 노인의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적[30]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31],[32]에서 밴드를 이용한 운동과 발마사지가 노인의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도입부와 마무리에 실시한 탄력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과 참여자 자신의 발마사지 활동이 노인들의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발마사지를 하는 동안 노인들은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꼈고, 발마사지가 마무리되면 자신의 발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삶의 의미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국내노인을 대상으로 운동과 의미요법을 병행하여 삶의 의미를 증가를 보고한 선행연구[29],[33]의 결과와 유사하다.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28]. 삶의 의미는 나이가 들면서 영향력이 커지며 노년기에 삶의 의미는 행복, 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15],[34]. 노인의 삶의 의미는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가 주된 원천이므로[34] 마을회관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삶의 의미를 증가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박운진과 김금중[35]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노인의 우울을 낮추고 생의 의미와 건강증진

행위를 높여줌을 보고한바 있다.

자살생각은 중재전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삶의 의미는 자살생각에 대한 탄력성 요인으로 보고된다[14],[16],[18].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농촌에 거주하고, 75세 이상의 고령에다 75~80%가 배우자가 없고, 80% 이상에서 무학의 상태였지만 자살생각이 도구[25]의 절단점 11보다 더 낮은 4.69점에서 5.2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춘영 등[36]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우울의 호소가 높지만 자살생각률이 낮고 실제 자살률도 낮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우울과 자살태도의 관련성이 낮아 실제 자살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보람과 이정화[37]는 가족유대감이나 마을 공동체 의식과 같은 대처자원이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켜 정신건강을 높이고 자살생각을 낮춘다고 하였다. 대부분 농촌노인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들로만 이루어진 농촌지역의 환경에서 가까이 있는 이웃의 역할이 매우 크고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이 삶의 의미,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G군의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25명(실험군=12명, 대조군=13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월 10일에서 3월 14일까지였다. 실험군은 주 1회 60분씩 총 10회기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roenke 등[2001]에 의해 개발된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최홍석 등[2007]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삶의 의미는 Steger 등[2004, 2006]이 개발한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을 원두리 등[200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은 이상주[2015]가 개발한 한국형 노인자살위험 사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대상자는 10주간의 행복마을 융복합 프로그램

참여 후에 우울이 낮아지고, 삶의 의미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살 생각은 중재 후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부지역 여성노인의 편의추출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 조사만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성을 달리하여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1Body.jsp?menuId=all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117&confmNo=117071&kosisYn=Y>
- [3] H. S. Choi, J. H. Choi, K. H. Park, K. J. Joo, H. Ga, H. J. Ko & S. R. Kim. (2007).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J Korean Acad Fam Med*, 28(2), 114-119.
- [4] E. K. Kim. (2015). Comparis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the Female Elderly Living Alone by Reg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6), 811-827.
- [5] E. Yaka, P. Keskinoglu, R. Ucku, G. G. Yener & Z. Tunca. (2014).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pression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9(1), 150-154. DOI: <https://doi.org/10.1016/j.archger.2014.03.014>
- [6] Y. Conwell, P. R. Duberstein & E. D. Caine. (2002).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Biological psychiatry*, 52(3), 193-204.
- [7] Y. Conwell & C. Thompson. (2008). Suicidal behavior in elders. *Psychiatr Clin North Am*, 31(2), 333-356. doi: 10.1016/j.psc.2008.01.004
- [8] Statistics Korea ;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33&kosisYn=Y>
- [9] M. H. Cho, D. S. Park & Y. W. Choi. (2013). Health Status of the Issues., Rural Elderly and Policy, 1-154. <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pageType=010101&biblioId=387880>
- [10] M. S. Chae & J. H. Lee. (2018).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of the Rural Elderly : With a Focus on Comparing Single and Couple Household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9(4), 553-569.
- [11] I. K. Seo & Y. S. Lee. (2016).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Suicidal Ideation - With a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in rural and urban areas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2), 219-247.
- [12] J. S. Yoo, H. S. Kim & H. J. Yon. (2014).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Vulnerable Community-Dwelling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882-2892.
- [13]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 <http://spckorea-stat.or.kr/korea02.do>
- [14] S. W. Kim, J. M. Kim, I. S. Shin & J. S. Yoon. (2012). Suicide and crisis inter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4), 341-348.
- [15] K. M. Kim, S. A. Ryu & I. C. Choi. (2011). The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happiness and health in Late Lif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2), 503-523.
- [16] M. J. Heisel & G. L. Flett. (2016). Does Recognition of Meaning in Life Confer Resiliency to Suicide Ideation Among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 J Geriatr Psychiatry*, 24(6), 455-466. doi: 10.1016/j.jagp.2015.08.007
- [17] M. J. Heisel & G. L. Flett. (2004). Purpose in life, satisfaction with life, and suicide ideation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2), 127-135.
- [18] E. M. Kleiman & J. K. Beaver. (2013). A meaningful life is worth living: Meaning in life as a suicide resiliency factor. *Psychiatry research*, 210(3), 934-939.
- [19] D. R. Won, K. H. Kim & S. J. Kwon.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2), 211-225.
- [20] L. L. Harlow, M. D. Newcomb & P. M. Bentler.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 Clin Psychol*, 42(1), 5-21.
- [21] M. C. Wang, O. Richard Lightsey, T. Pietruszka, A. C. Uruk & A. G. Wells. (2007).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95-204. DOI: 10.1080/17439760701228920
- [22] H. J. Oh, M. H. Gang, M. S. Kim & K. O. Oh. (2017). The Effects of the Convergence Program using Traditional play on Depression, Sense of Belonging and Suicidal Ideation in Rural Wome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13-421.
- [23] K. Kroenke, R. L. Spitzer & J. B. W. Williams. (2001).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9), 606-613. doi: 10.1046/j.1525-1497.2001.016009606.x

[24]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 M. Kaler.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

[25] S. J. Lee & J. S. Kim. (2016). Development of a Korean Geriatric Suicidal Risk Scale (KGS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1), 59-68.

[26] M. Park & C. Chesla. (2007). Revisiting Confucianism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sian Family Study. *Journal of Family Nursing*, 13(3), 293-311. DOI: 10.1177/1074840707304400

[27] K. A. Kang, S. J. Kim, M. K. Song & M. J. Kim. (2013). Effects of Logotherapy on Life Respect, Meaning of Life, and Depression of Older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1), 91-101.

[28] J. K Kim & C. N. Son. (2007). The Effects of Logotherapy on Depression, Purpose in Life, and Delinquency Impulsivity of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1), 1-19.

[29] C. H. Kim. (2018). *The effects of the Group Logotherapy for Community-dwelling Elderly with Depressive Symptom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4817834>

[30] S. M. S. Elias, C. Neville & T. Scott. (2015). The effectiveness of group reminiscence therapy for loneliness, anxiety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A systematic review. *Geriatric Nursing*, 36(5), 372-380. DOI: <http://dx.doi.org/10.1016/j.gerinurse.2015.05.004>

[31] C. S. Kim, K. S. Yoo & S. H. Hong. (2014). The Effects of Foot Reflexology on Arthralgia, Ankylosis, Depression, and Sleep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Women with Osteoarthr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5(3), 207-216.

[32] M. S. Kim & M. H. Gang. (2017). The Effects of Foot-Reflexology Massage on Sleep, Depression, & Constipation in Community-Dwelling El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249-259.

[33] C. H. Lee. (2006). Effects of Logotherapy with Exercise on Meaning of Life, Ego Integrity and IADL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36(5), 701-709.

[34] S. Hupkens, A. Machielse, M. Goumans & P. Derkx. (2018). Meaning in life of older person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Nurs Ethics*, 25(8), 973-991. DOI: 10.1177/0969733016680122

[35] Y. J. Park & G. J. Kim. (2017). The Effects of Meaning of Life and Depression on Health-Promoting Behaviors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Community Health Progra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411-417.

[36] C. Y. Koo, J. S. Kim & J. O. Yu. (201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Elders'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Comparison of Gender Difference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5(1), 24-32.

[37] B. R. Lee & J. H. Lee. (2015). The Effects of Family Tie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 Focused on the Meditating Effects of Community Consciousness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6), 795-809.

오 현 주(Hyun-Joo Oh)

[정회원]



- 201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9년 4월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 hjoh@dst.ac.kr

강 문 희(Moonhee Gang)

[정회원]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 mhgang@cnu.ac.kr